

14일 Market Index	
↓ 코스피 2348.97 (-61.63)	↑ 코스닥 758.05 (-30.84)
↓ 금리 (연율) 3.381 (-0.054)	↑ 환율 (원/달러) 1311.10 (+9.30)

【뉴스】  
기업 CEO 초청 간담회  
尹 “노동·교육개혁 통해  
양질 일자리 창출 지원”  
02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4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 “재정준칙 없는 나라 한국 등 몇 곳 안돼”

여야·전문가 ‘재정준칙’ 공방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수개월째 계류돼 있는 가운데, 재정 지출의 유혹에서 벗어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당과, 재정건전성만 강조하는 정부여당의 논리가 빈약하다는 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고, 재정준칙을 서둘러 도입하자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명예교수와 재정준칙 도입 논리가 부실하다는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에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이날 공청회에서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세이렌의 유혹(재정 지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묶을 밧줄(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오디세우스가 해협을 통과할 때 세이렌의 유혹 앞에서 자기 몸을 묶었다. 스스로 제약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지 않으면 파국으로 갈 것임을 알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국가치고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그 외 몇 나라 없다”고 밝혔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구조적 위기에 놓인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 “재정준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상황에서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때를 놓쳐 인구위기 문제를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채무비율이 좋아도 재정 부양비율이 안 좋아지면서 적신호가 들어올 수 있다”며 “숫자로 못박는 재정준칙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하고 사교육과 부동산으로 각자도생하는 한국의 사회 및 복지 정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옥동석 인천대 교수에게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하는데, 재정도 건전할 때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임진왜란 당시 (울곡 이이의) 10만 양병설 같이 대비해야 하지 않느냐는 절박한 학자의 심정으로 재정준칙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다른 국가들이 도입하니 한국 정부도 도입하고,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으면 국가 신용도가 낮아진다는 정부여당의 우려는 논리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2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IP확보·구조재편... OTT ‘생존게임’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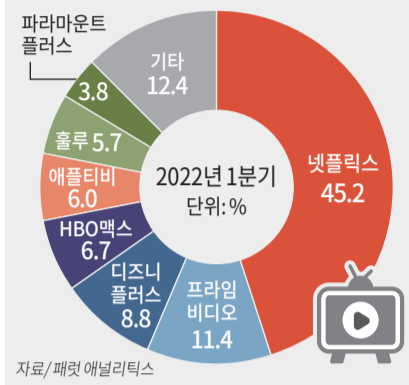
경제한파로 OTT시장도 성장둔화  
티빙·웨이브 등 MAU 대폭 감소  
업계, 구독료 인하 등 이탈막기 총력

‘생존’

지난 2년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는 코로나19 수혜로 2년 만에 1조원을 기록하는 등 급 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글로벌 경제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OTT시장도 둔화 혹은 정체기를 맞이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투자 시장까지 얼어붙으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OTT업계 사이에서는 올해 목표는 ‘생존’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2021년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초거대 흥행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사와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는 쓴 고통을 겪

### 글로벌 OTT플랫폼 점유율



은 국내 OTT업계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업계는 생존을 위해 IP확보와 구조재편을 단행하기 시작했다. 또 히트작을 쫓개 선보이거나 구독료를 낮추는 등 생존을 위한 과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다.

지난 2021년 1505억 달러 수준이었

던 국내 OTT 시장은 연평균 약 26%씩 성장해 오는 2030년에는 1조 2416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시청자 추이 증가세가 둔화를 넘어 정체기를 맞이하기 시작했다. 실제 오징어게임 이후 히트 콘텐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작, 투자비까지 증가하면서 손실폭을 염려하던 제작사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비일인덱스에 따르면 주요 OTT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하락세를 보였다. 1월 515만 명이던 티빙의 MAU는 2월 475만 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웨이브는 401만 명에서 376만 명으로, 쿠팡플레이도 439만 명에서 401만 명으로 줄었다.

(4면에 계속)

/최빛나 기자 vitna@

재정준칙 도입 국가재정법 계류  
尹·여당 재정 건전성 위해 필요

김태일 교수 “지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제약하는 것이 합리적”

나원준 교수 “숫자로 못박는 준칙 불평등·양극화 심화, 복지 위축”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길 때 적자 한도를 2%로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적자재정의 만연화로 인한 역대 최고 수준의 채무 증가폭,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위기를 지적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핵심 국정과제였던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재정준칙 컨퍼런스’에 참석해 “최근 수년간 지나친 확장적 재정 운용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지난 5년 사이에 약 62% 늘어나 400조 원 이상 증가해 금년말 약 107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매년 100조원 내외의 대규모 재정적자도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들어 국제 신용평가는 우리의 재정전망에 대해 경계감을 표시하는 등 이제는 더 이상 재정이 우리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재정준칙 도입에 의지를 드러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61.63포인트(2.56%) 내린 2348.97에, 코스닥지수는 30.84포인트(3.91%) 내린 758.05에 장을 마쳤다.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시스

## ‘SVB 파산’ 불안감... 코스닥 3.9% 폭락

美 증시 약세로 국내증시 부담  
외국인 투자자 6394억 팔아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 사태 여진이 이어진 가운데 국내 증시가 크게 출렁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각각 3% 내외 하락했다. 다만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이슈로 변동성은 커졌지만,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과 함께 금융시스템 붕괴로 이어지는 힘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61.63포인트(2.56%) 하락한 2348.97로 거래를 마감했다. 특히 이날 외국인 투자자는 6394억원을 팔아치우면서 주가를 끌어내렸다. 반면 개인과 기관투자자가 각각 5678억원, 218억원을 순매수했지만 하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코스닥지수 역시 전장 보다 30.84포인트(3.91%) 떨어진 758.05에 마감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456억원, 2609억원을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

미국 정부가 SVB파산 사태 이후 해법을 내놔음에도 금융주를 비롯한 미 증시가 약세를 이어가면서, 국내 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 증시가 SVB 사태에 대한 미 정부 당국의 해법 발표에도 약세를 보이는 등 여전히 변동성이 확대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이라며 “한국 증시는 재무제표가 견고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겠지만 재정적으로 불안한 기업들의 매출 축회 가능성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SVB사태의 추가 악화 가능성이 낮다는 글로

벌 금융당국의 언급에도 여전히 해당 사태의 파장이 지속돼 아시아권 투자 심리 악화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SVB에 이어 시그니처뱅크가 폐쇄했으며, 13일(현지시각) 중소 지방은행 리퍼블릭뱅크(FRB), 웨스턴얼라이언스뱅크코프의 주가가 각각 61%, 47% 폭락했다. 여기에 JP모간체이스, 씨티그룹, 모간데이스 등 미국 대형은행의 주가 역시 5% 내외 하락했다.

이에 미 연준이 더 이상의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에서 금리를 베이비스텝(0.25%p 인상)에서 동결할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다.

/이영석 기자 ysl@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외교부, 호주 핵잠수함 공급에 “역내 평화 협력 지지”  
▲ 가공식품 가격 10.4% ↑ ... 14년 만에 최대 상승 /사진 뉴스시스

▲ 북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 공정위, 카카오키 SM 인수 후 심사 연내 마무리



▲ 가덕도신공항 육상·해상에 걸쳐 매립식 공법으로 건설 /사진 뉴스시스  
▲ 강원랜드, 마닐라에 사무소 열어... ‘KLSA베리’ 본격 홍보